

여성운동 대토론회 발제문

토론회 1. 여성운동의 현실전망과 이후 방향성

8월 22일(토) 10:00 - 13:00 명진관 207호

발제문 1

대학내 여성운동의 현실과 전망

송란희 (성균관대 총여학생회장)

대학내 여성운동의 정치적 의제

대학 내 여성운동이란 것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 동안 여성운동은 정치적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오류들을 범하였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었다고 생각한다. 학내에서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개인적인 것에 대한 물음부터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의 주제로 자리잡은 것이 '성폭력'이 아닌가 한다. 여성운동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자기 몸에서부터의 주인되기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의제는 상당히 적절한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여성운동이 그 과정(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을 만들고 있다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내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운동의 초기 단계는 어쩌면 성폭력이란 운동주제를 찾았을 때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폭력이란 주제로 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몸으로 와 닿는 남성권력 혹은 가부장제, 자본의 논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가면서 우리의 고민은 점점 확장되었고, 활동가들은 단련되었다.

'성폭력'과 더불어 우리 몸과 와 닿는 주제찾기에 성공한 것이 바로 '여성노동문제'이다. 과거의 여성노동운동은 남성노동운동의 보조자 역할에 그치거나, 혹은 여성노동자들이 운동의 선봉에 섰을 때조차도 여성의 권리와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제기에 그쳤다. 이것은 보통 남성 노동자들의 운동과 별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여남불평등이 문제제기 된 것은 여성운동이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한 뒤에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노동의 문제가 자본의 논리와 더욱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산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혹은 남성만이 해 온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그저 자아실현을 위한 사치에 불과한 것인데 (심심해서 일한다?)의 논리),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제기한다는 것은 더욱 엄청난 요구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작업장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채용상에서부터 고용상태에 있을 때 혹은 해고되었을 때까지 모두)는 바로 생존권의 박탈의 문제가 우리의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

1) 초기에 총여학생회로서 운동을 풀어나가면서 우리는 전체운동판의 두 가지 주제중 한 가지를 우리의 주제로 받아안아야만 했다. 이것은 운동 초기에 있어서의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여학생운동이 '여성'이라는 단어만으로 차별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빈민여성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기지촌 여성문제 등이 여학생운동의 전면적 활동주제로서 풀어지지 못한 것이 미약하게나마 설명된다. 이런 일련의 주제 등은 전체 학생운동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며, '여성'이라는 독립된 전체체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여학생운동이 이 주제에 대한 어떠한 차별화된 입장을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회에서는 한 인간의 경제력이 그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권리 찾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노동문제가 우리의 정치적 의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자,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활동 해 왔는가?

대학내 여성운동의 활동상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가 학내 여성운동의 대표체이다. 학생회로 존재하는 만큼 학우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 학내 운동판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어쩌면 가장 안정적인 활동단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학내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제에 대한 담론형성을 기반으로 한 의식 전환이 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담론형성의 방법 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는데 이에 있어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주간'을 선포한다거나 하는 것들과, 문화판을 통한 것 등을 주요한 기제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군위안부 주간', '성폭력 근절 주간'같은 것들과 안정적으로 열리는 '여성현실제'라는 1학기 대동제 판(전체 대동제와는 기간부터 차별된다), 여학생 새로 배움터, 2학기 건학기념제 기간에 열리는 문화판 등이 그것이다.

처음 '성'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나갈 때 남녀공학이란 지형은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그저 그런 지형이었다. 이것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활동의 시작이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성교육이란 것은 그리고 우리가 보고들은 성문화하는 것은 자극히 은밀한 것이어서 이런 담론을 제기한다는 것부터가 엄청난 논쟁거리로 다가왔다.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성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을 가지는 진정한 대학인'이라는 담론을 던져준 것 뿐이다. 사람들은 이 담론을 매우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며, 지성인인 당신들은 매우 교양있게(?)성에 대한 논의들을 펼쳐나갔다. 이것을 극대화한 예가 바로 얼마 전에 학내에서 결성된 '성폭력 학칙개정위원회'이다.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 되어버려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체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노동문제를 제기할 때는 기존의 노동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차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성'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차별성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의 차별성을 포함한다. 상당히 뜬금없는 소리로 다가오는 기존의 노동운동에 비해 우리의 노동운동은 대안에 있어서도 훨씬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야기를 푸는 중에서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학우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선전물을 붙이되 분노를 모아낼 수 있는 구조물을 같이 설치하였고,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편안히 볼 수 있는 곳을 선전장소로 이용'자는 횡수로 학우들을 만나 갔다.

그러나 활동에 있어서 여러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 데 이것은 아직도 여성운동이 부른이라고 여기는 여러 학생운동인자들의 수준과 최근까지 성에 대한 담론만이 부각되면서 우리의 활동을 풀어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운동에 있어서 주제의 다양성과 그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만 활동이 치우친 것은 그것이 물론 중요한 사안이라는 하지만 어쩌면 학내에서의 여성운동을 더욱 더 고립시키는 기제가 되었는데도 모른다(어쩌면 여성운동을 더욱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기대도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도 일면 있다. 다른 주제에 대해 고개 돌리기, 그것을 이야기 하기는 우리 스스로의 내용 감화와 학내에서의 세력확장에서 땔 수 없는 부분이다.

연대 그 지난한 첫 걸음을 위하여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 '연대'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고민없이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고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연대의 필요성 등 원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건과 원칙이라는 전략적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학내 여성운동에 있어 연대는 어떤 필요성을 가지는가?

대중운동에 있어 담론의 확장과 세력의 결집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학내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단위들과의 연대는 활동의 전제가 된다. 여성단위라함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균관내의 여성운동단위와 타대학 여성운동단위, 학외(외부) 여성

2)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불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 성폭력을 개인간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 등등

단위가 그것이다.

학내 여성운동단위는 독자적³⁾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문대 여학생회, 정정현 교지 편집위원회, 학회로 활동하고 있는 켄더, 이츠, 사회대 여성학회, 법대 여성학회 등이다. 이런 단위와의 연대는 앞서 제기한 담론의 확장과 세력의 결집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공동의 모임이나 회의에 있어서 그 소집이나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총여학생회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간의 일종의 위계질서가 성립되어, 대등한 단위들과의 연대가 아닌 상충단위와 하충단위의 연대(이것을 연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가 되어 단위들의 위상이나 역할이 어떤 위계질서의 연장선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총여나 그 밖의 단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나마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문대 여학생회나 정정현의 경우는 좀 나은 편이다. 예를 들면 인문대 여학생회, 정정현의 경우 총여학생회와 지속적인 회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공동사업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논의되고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학회들과의 연석회의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이 어떤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는 단위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내 여성운동단위들과의 재대로된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치연합형식의 활동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타대학 여성운동단위와의 연대는 우리의 주제를 공동으로 담론화하여 논의를 좀 더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운의 정치세력화가 좀 더 용이하다는 부분에서 중요하다. 현재 타대학 여성운동단위와의 연대는 주제별 연대⁴⁾로 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운동의 주제의 확장이라는 부분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주제별 연대에 각 주제들 간의 원활한 소통은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면서 가장 난점인 부분이 바로 외부 여성단체들과의 연대이다. 여성단체들과 학단위와의 연대는 상호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활동평가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학외 여성운동과의 연대이다.

학외 여성운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여성주의적인-과 동일하다면 어느 정도의 긴밀한 연대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동의 시기와 경험이 다르다는 점, 활동의 지향성이 조금은 다르다는 점, 활동공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때로 곤란하다. 따라서 학외 여성운동과는 사안별로 연대하되, 운동의 간접적인 지지자가 되는 것 수준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학내 여성운동의 연대에 있어 점검해야 할 부분은 학생운동진영과의 연대이다. 학생운동진영과의 연대는 상당한 원칙들을 요하지만, 원칙을 지킨 연대가 가져오는 여성주의 확장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당한 원칙이라는 부분은, 사실 단지 하나의 커다란 원칙일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기'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칫 연대라는 것이 잘못하면 먹혀버리는 연대가 되기 쉬운 지라 이것이 연대의 필수적인 원칙이 되는 것이다. 이 입장을 가지고 사안별로 담근을 먹여서 연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연대이다. 최대한 학생회 사업에 여성주의를 입력시키는 것, 예를 들어 사법대에서 행정학교를 하거나, 사회대에서 학회학교를 할 때 여성이라는 주제를 넣고 그 주제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식인 것, 이렇게 학생운동과의 연대는 서로의 이익이 합치되는 부분에서만 가능한 상태이다. 만약 학생운동이 더 이상 여성문제를 부문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면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3) 독자적이라 함은 그들만의 활동공간과 재정이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활동을 풀어내는 단위를 뜻한다.

4) 주제별 연대는 각 주제들이 주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성주의로 연결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의 여성운동...

‘대학’이라는 공간은 흔히 진보의 공간으로 사고된다. 이는 담론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대중의 존재, 그리고 원칙을 견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사회의 비판적 견제세력으로 존재해왔고 이는 80년대 열악하고 비민주적인 사회의 구조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80년대 여학생운동은 사회·경제·문화적인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성’이라는 부분을 특화시켜낼 수 없었으며, ‘전체운동’에 균열을 가하는 어떠한 담론도 허용되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자신(여성)에 대한 자아분열적인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는 자신(여성)의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없는 억압과 담위의 분위기, 그 속에서 늘상 여성자신의 문제는 그대로 묻혀버렸다.

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대학내의 ‘운동’의 흐름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기존에 전선과 적이 명확했던 80년대와 달리, 90년대에는 많은 학우 대중들을 단일한 목적으로 설득하고 선동하기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 학생운동은 많은 질곡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분운동’의 이름으로든 그렇지 않던간에 다양한 주제를 건드리며 ‘대중성’ 확보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 대학의 여성운동가들은 ‘성폭력’이라는 이슈로 모여서 하나의 독자적인 흐름을 엮어나가기 시작한다. 이는 ‘성폭력’이라는 이슈가 여성 모두가 지닌, 여성 모두의 경험으로 시작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찾는 투쟁이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독자적 노선을 천명하는 데에 매우 유효한 의제였음을 의미한다. 즉 ‘여성’의 문제가 전체운동 속에서 고민되고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담위와 기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틀거리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모아내는 것, 그리하여 ‘여성’이라는 새로운 운동 주제를 삼장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한다.

‘성폭력’이라는 이슈에 있어서 ‘대학’ 혹은 ‘대학생’이라는 부분은 질실하게 특화될 필요가 없었다. 물론 대학내에 존재하는 많은 여학우들로 하여금 ‘여성주의’를 담론화시키는 데에 효율적인 의제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으나, 운동/활동주체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은 ‘대학인’의 정체성이라기 보다는 ‘여성’으로써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 시점에서도 (각각의 여성들에게 다양한 포지션이 있고 그것에 따른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지만) ‘여성주의’에서 출발하는 운동을 고민한다.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여성노동권 운동 역시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에 기반한 지금까지의 대학내 여성운동을 당연한 전제로 놓는다는 것이다. 즉 여타 무수한 거대담론과 집단의 범주 속에서도 여성운동을 하는 우리/주체가 ‘여성’에서 출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우리는 주장한다. 현시기 ‘여대생’이라는 위치를 고민함에 있어서도 여대생이라는 사회내 특권층으로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에 동의한다고 할 때,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 속에서도 여대생과 노동자여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즉, 우리의 운동에 있어 여성들이 기존 사회의 분류틀을 넘어서 ‘여성이기’에 가해지는 ‘억압의 기제’에 방점을 찍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노동권이라는 개념을 ‘기존 노동’의 상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 도래와 함께 구축된 공/사 영역에서의 노동의 구분 속에서, 여성의 노동은 사적 영역(가사)으로만 한정지어져 사고되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하고자 한다(사실 가사가 ‘노동’임을 인식한 것도 얼마되지 않았다. 주로 가사일을 맡는다는 이데올로기의 속에서 여성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라는 딱지를 붙인 채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소위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또 집안일밖에 할 줄 모른다는 가사노동의 폄하 속에서, 임금노동시장의 차별(단순 저임금 반배노동)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로 공적 영역에서의 노자 대립구도에만 집중하는 노동담론은 여성노동에 대해 무지할 수 밖에 없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다. 여성노동권의 문제는 사무직, 생산직 등의 구분도 가능하지만 ‘여성노동담론’으로 독자화되어 구축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는 이렇게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여성의 노동을 분석하고

5) 역사 속에서 여성 전체가 완벽하게 자기 가정의 전업주부 역할만 수행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의 개념 재정의.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노동/실업의 문제까지 제기해 나가고자 시도한다. 현재 신규여성실업문제를 주축으로 가져나가고자 창설한 '먹고살기 대책위원회'의 활동 역시 위와 같은 여성노동권의 인식을 전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노력하면서 단위확장을 꾀하고 있다.

대학내 여성운동과 대학의 여성운동, 다른운동과의 관계성

지난 98년 6월 25일에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연대-먹고 살기 대책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IMF이후 등장하는 무수한 담론들 속에 '여성'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단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독자화될 수 없었던 '여성노동권'에 대해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담론화하는 테이블의 위상으로 꾸러져 90년대 여성운동의 또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여성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생과 여성노동자라는 '차이'를 말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며, 그보다는 오히려 '여성운동의 확장'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전략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인, 따라서 남성적인 전체운동 혹은 중심운동(?)의 이슈인 '노동' 영역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침투인 것이며, 따라서 타단위와의 관계맺음은 기존의 운동에 종속됨이 없도록 새로운 방향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1) 대학 밖 (여성)운동과의 관계.

여성 노동의 문제가 정책 설정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기존의 핵심정치권에 대한 전면적인 침투라고 할 때, 대학 외의 여성노동권을 고민하는 단체와의 연계는 절실한 것이다. 즉, 우리는 (예비)여성노동자이며 또한 예비 신규여성 실업자라는 면에서, 현장에서 실제 임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고 함께 연대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동 운동,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들을 생각해 볼 때, 독자적인 여성 노동 운동은 전면적으로 제기되기 힘들었다. 여성 노동자 문제는 노동자 문제 속에 부분으로서 전체 운동에 발을 맞추는 정도밖에 이야기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 단위가 민주노총 여성국, 한국노총 여성국, 여노협 실업대책본부와 함께 여성 노동권을 고민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정기집회를 가지게 된 흐름은 대학 사회 내에서 여성 노동자 문제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이제까지 전체의 흐름속에서 간과되어온 '여성 노동자'라는 문제를 독자적으로 가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것, 그리고 노동 운동진영에서 나름의 세력을 획득하고 있는 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대학을 주 근거지로 삼고 있으므로, 그 연대는 대학 내의 지형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체와의 연대에서의 작업들이 단순히 학단위로 '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학단위에서 충분한 공유를 전제하는 것, 학단위로 돌아와 다시 그 문제를 학내에서 담론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학단위 주체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단위가 신규여성 실업자라는 문제를 중심축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도 유효한 거점을 생산한다. '신규여성실업자'라는 문제는 현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여성임노동자 문제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유의미한 문제입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포함한 여대생의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성들끼리의 포지션이 다르다는 것을 상정하고서라도 우리는 신규여성 실업자이거나, 혹은 곧 신규여성실업자가 될 단위 (현 시기에 있어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연대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학단위 다른 운동주체들과도 공유되고 담론화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2) 대학내 다른 운동과의 관계

지금까지 대학 내의 노동 운동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 문제는 특화되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대학 내에서 노동 운동의 흐름에 있어 여성 노동을 독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거대 담론을 흐리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었었던 것이다.

6) 여기서의 노동자/실업자는 사회적 노동자(공적 영역에서 임노동을 수행하는(하고자하는) 자)의 상으로 우선은 한정한다.

7) 특히 대학사회 내에서 '간과'의 정도는 심각하다.

8) 여기서 우리의 목소리란, 철저하게 여성주의에서 출발하여 노동운동권에 개입해 들어가는 입장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 노동이 특화될 수 없는 상황적 열악함이 존재했다면 IMF라는 위기 상황은 여성이 노동이라는 부분에 있어 1차적 피해자가 되게 작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첨예한 문제로 이슈화되어야 하며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금의 시기에서 대학 내 여타 운동 진영 역시 여성 노동자의 문제, 여성 실업의 문제로 '여성'에 대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는 단계임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상, 여성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학내 운동과 연대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타진된다고 할 때, 우리는 왜 연대해야 하며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

여성 노동자 문제를 이야기 하는 데에 있어 기존의 학운 단위와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담론화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의 세력 확장의 문제가 된다. 학내에서 노동이라는 이슈에 대해 나름의 세력과 대중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운동단위와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학운 단위와의 연대는 그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주고 끊임없이 제안을 하여 이슈화시키는 것, 그리하여 노동이라는 담론에서 여성 노동자의 문제가 소외되지 않는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어떤 필요성이나 최소한의 동의지반을 가지고 연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연대의 과정에 있어 끊임없는 문제에 부딪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라는 질문에 있어 우리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 이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가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반을 고수하고 세력화하는 데에 유의미한 전략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발제문 3

양 진 (고려대 여학생위원장)

0. 정세분석.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공세속에서 자본과 이를 등지고 있는 사회적 통제의 수단들은 사회의 공적 영역을 위시한 사적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사적영역이라고 규범화되었던 공간에 억압의 양태들을 극화시켰다. 이와 함께 다양한 운동세력 내부에서도 포스트 모던 담론을 중심으로 공/사로 구분되어있던 사회의 이분화적 개념에 대한 비판들이 줄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영역이라 일컬어졌던 공간의 외화는 이 사적 공간 안에 갇혀있던 피억압의 주체를 불러 일으킨다.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자본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적대관계들의 형성, 87년을 기점으로 한 민주화 의식의 고양, 기존 운동에 편입되어 여성문제를 풀어가는 한계성에 봉착 등의 사회적 흐름에 따라 여성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요구가 일어났다. 이러한 다양한 운동의 독자세력화의 요구들은 한편에서는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러한 독자세력화가 운동의 변혁성을 희석시킨다거나 단결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들을 펴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다양한 방향모색의 과정에서 여성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무엇이며, 타운동과의 관계와 전체적 관점에서 이러한 운동의 분화들이 어떻게 사회변혁적 성격을 띌 수 있는가 또한 대학내 여성운동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들을 풀어가고자 한다.

여성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그간 사적공간에 갇혀 억압의 양상이 비가시적이었던 여성들의 사적인 삶을 정치화 시켜내는 것이며 이 안에서 해방을 위한 실천의 지점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와는 다른 개념으로 두가지 정도의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9) 여기서 대학내 주류운동이라 함은 학생회 중심 운동이나 여타 노동운동에 정체성을 가지는 운동(원쪽? -.-)을 의미한다.

10)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노동문제를 '침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편협한 노동개념을 확장시킨다는 적극적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How?

는 기존의 중심운동의 물성적인 도구적 수단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세력 형성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는 여성문제의 독자적인 억압의 체계와 다양한 해방의 전략 모색을 통해 여성의 눈으로 사회의 여성, 인간 억압 구조를 비판적으로 통찰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자적인 사회변혁운동이라는 것이다.

1. 대학의 정세분석- 대학이라는 공간과 학내여성운동의 존재조건.

- 여대생의 존재적 특성 - 여성, 학생.

여대생은 여성으로서의 성격과 학생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학생¹¹⁾으로서의 성격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자 계급과는 구별되며, 타인의 노동력을 구매하거나 착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가 계급과도 구별된다. 이러한 경제적 생산관계 내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고 대학이라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생산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과도기적 동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상의 습득기회가 많고 그 실천이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여성으로서의 성격은 성별위계적인 사회화의 과정에서 수동적, 의존적 존재로 교육받고, 여성억압적인 사회안에서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규정됨에 기인한다. 이러한 여성억압적인 사회구조에 기반하여 대학이라는 공간 또한 여남학우간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남성중심적인 학생회구조와 학사행정, 교육과정 등 전반에 걸쳐 남성중심적으로 구조화된 대학내에서 소외를 겪으며 미래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경제적 불안정을 깨닫게 된다.

학내 여성운동은 이러한 여대생의 위치에 존재적으로 기반한다. 학내 여운은 학내 여학우들의 상황과 수준에 기인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여성해방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대중운동이라 할 수 있다. 성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영역에만 작동되는 것이 아닌 개인들의 일상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작동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구조속에서 파생된 문제임에 학내의 여성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학내 여성운동은 여성억압의 본질을 규명하고 여학생들의 비주체성을 극복하여 여성해방을 이루어 낼 주체로서 바로 서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 학내의 여성운동은 전체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억압의 본질을 규정하며, 학내 여학우들의 계급적 위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여성문제는 다른 제반의 사회문제들과 중층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여성집단들 사이의 차이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안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시각으로 전반적인 사회의 체제들을 해석하고, 변혁적 운동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 학내여성운동은 피해자 여성들 스스로의 자각과 주체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깨뜨려질 수 있다. 이는 여성해방을 위한 일관된 고민과 장기적인 안목, 전문적인 고민의 확장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변혁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학내 여학생운동은 독자적일 필요가 있으며,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에 대한 의미의 기준들을 세분화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여학우의 공통적 경험에 기인한 대중성을 가진 정치적 이슈를 생산해 냄으로서 여학우들과 실천의 장에서 함께해야 한다. 이런 대중성에 기반한 정치적 이슈는 가시적인 조직화의 정도나 의식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로가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 학칙제정의 문제나 여성노동문제는 이러한 여학우들의 공통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학내 여성운동은 학내 여학우의 문제에 착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대중추수주의가 아닌 여성운동의 전체적인 정치화안에서 변혁적으로 풀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학내의 여운인자들을 조직화해내고, 한편으로는 잠재적 조직화의 인자를 위한 의식화 작업이 정치세력화의 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1) - 전체여성취업자중 여대생의 비율이 가장 낮고, 교육정도에 기반한 취업률에 있어서도 중등학교 졸업이하 여성의 취업률에 비해 대졸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현실을 볼 때 대졸여성을 경제관계에서 상층에 속하는 계층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상층으로의 유입에 있어 유리하고, 성차별의 정도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여성들의 계층은 결혼과 가족을 통해 아버지나 남편의 계층에 유입되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 있어 교육의 정도가 계급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그것과 동등하게 고려될 수는 없을 것이다.

- 현재 대학이라는 공간을 계급상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이라는 학문 탐구의 공간이 숙련노동력의 기능적 재생산을 위한 자본의 체제속에 편입되어가고 있는 정도가 강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현실 대학이라는 공간안에서 여성운동은 다양한 운동세력들과 매끄럽지 못한 관계에 놓여있다. 다른 운동세력과의 연대는 실질적 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명목적 연대에 그치고 있으며, 다른 운동단위와의 소통은 단절된 채 '여성해방이 우선이나/인간해방이 우선이나', '왜 여학생운동 단위가 따로 필요한가/ 학생회 내에서 풀어내라'는 성과없는 논쟁들만이 존재한다. 이는 명목적인 권력의 의미로 작동하는 학생회 중심의 권력체계와 단일한 억압의 구조를 위시한 학생운동세력의 독단성을 근거한 편협성과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 다양한 적대관계의 출현에 대한 외면과 운동의 단순한 파편화는 운동의 변혁성을 희석화 시킬 뿐이며, 상호간의 반성과 성찰의 지점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적대관계는 최소한의 공통적인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 최소한의 공통성은 자본제 사회라는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억압의 체계 자체는 독자적 모순들과 함께 사회전반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하의 역사성을 지니는 것이며, 여성운동의 정치화는 이러한 억압체계를 여성의 눈으로 정교화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¹²⁾ 이러한 전반적인 변혁의 기치안에서 다른 운동세력과의 연대의 역사적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이며, 현재는 그 연대의 상의 모색에 대안체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 학내 여성운동의 정치적 의제와 기간 운동의 성과들.

현재 학내 여성운동은 다양한 방향성을 띄고있다. 전여대협을 중심으로한 민족주의 여성운동세력과 여성주의를 기치로 성폭력연대회의를 중심으로한 세력, 여타의 산발적으로 흩어진 개별단위로 다양한 조직 형태와 이론체계들을 중심으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여대협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내 여성운동 세력의 결집력을 소실했다. 이는 중심으로 NL계열운동의 복무로 여성억압의 독자성에 대한 경시와 이를 통한 여학우대중성의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 수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서 학여운의 정체적의제와 기간의 성과들은 이러한 전여대협세력 여타의 세력의 성격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기간 학여운의 가장 큰 성과물들은 앞서 말한 여독정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다양한 방향성의 모색의 과정안에서 과거 학운중심 세력안에서의 학여운을 냉정하고 비판하고, 다양한 여성의 경험들을 정치화시켰다는 것이다. (고대의 학여운의 경우에도 84년 1대 총여의 건설에서 89년 회부논쟁¹³⁾을 가시적인 이유로 하는 총여의 해소, 2년의 공백기, 1대 총여가 건설되고 해체되고, 재건되는 술한 반복의 역사안에서 학여운의 독자적 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여독정의 개념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주제별 흐름의 생성과 주제별 학여운의 연대가 생겨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연대회의와 먹고살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여학우, 여성노동자의 공통된 경험을 대중성에 기반하여 정치적 이슈로서 물위에 올린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여학우의 자치적인 운동 세력화와 의식화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치적인 대안모색의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치적인 흐름이 개람의 흐름이 아닌 변혁성이 어떤 방식으로 위치지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계성과 주제별운동이 단순한 분산된 운동의 형태가 아닌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상으로서 위치지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성립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학외의 문제들 빈민여성, 여성노동자, 위안부 문제 등을 어떤 형식으로 학내에 여문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 학여운의 경우 대외적인 투쟁의 지점에 중심으로 착목하는 성격이었다. 이는 외부와의 연계가 효율적이었다기 보다는 학생운동의 외부투쟁에 얽매었다는 판단이 옳을 것이다. 현재는 여독정의 과정에서 여성의 고유한 경험이라는 것에 중심을 뒀으로서, 자신이 위치지워진 공간의 사람들에 시각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학외의 문제를 이슈화 할 때는 이를 여성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작

12) 현재 신자유주의의 흥수 속에서 사회적 경제관계 자체도 비가시적인 가부장적 구조를 확고히 하고 있다. 파견근로제나 금융권의 복선적 인사제도, 여성노동력의 주변화에서 이러한 예들을 볼 수있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세력에서 이러한 관념성들에 날카롭게 착목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공적영역의 생산관계 중심의 맑스주의 체제에 재생산의 영역을 포함하고,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를 가부장적 자본주의로 규정하기도 한다.

13) 회-부 논쟁은 총여의 하부단위의 악화와 총여내부의 변혁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론에 대한 사상논쟁 속에서 총여학생회-총학내부의 여학생부중에 어떠한 형태가 학여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논쟁이었다. 이후 회부논쟁은 하부단위의 붕괴를 불러왔고, 대표체로서 학우들의 의견에 대한 고려가 없는 소외된 논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차이: 서로의 의견에 대한 이해.

반자본 투쟁.

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영역의 지양.

key word

- 여성/사적영역.

3. 대학내 여성운동의 현주소: 타 단위와의 연대상을 중심으로

앞서 대학내 여성운동은 궁극적인 지향점을 지닌 변혁운동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현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는 권력의 체계들- 남성, 가부장적 자본, 여타의 권력-이 여성의 억압적 경험을 토대로한 여성해방적 시각속에서 해석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적대관계들안에서 하나의 억압기제만을 중심으로 운동을 풀어나가는 것은 운동의 고립을 부를 수밖에 없다. 여성의 경험안에서 계급의 문제, 환경과 개발, 교육의 문제 등은 분명 독자적인 운동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나아가 체제지양적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대의 지점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운동세력의 독자적 세력화는 동시에 다양한 연대의 필요성을 부를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인 면에 대한 동의와 현실적 상황은 종종 배치된다. 대체로 경험하다시피 학운세력, 자치단위와의 연대는 용이치 않다. 자치단위는 생명의 시점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모색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꾸려낼 기반자체가 약하다. 인자의 재생산, 물질기반은 운동자체의 사활을 결정내기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운동세력과 학여운세력 간에는 힘의 역학관계가 존재한다. 학운세력은 학생회를 통한 물질기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여학운에게 부여된 것은 학운의 조직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운동이다. 학내 여학우들의 기본권의 문제는 여학운에게 떠맡기듯 넘어오고, 여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학운 세력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동등한 연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등한 연대는 동등한 권력을 가진 세력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은 우선적으로 학여운의 성장을 위한 물질기반, 대중적 기반에 대한 학생회 단위의 내용적 이해와 연대이다.

이러한 연대는 상호운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상호운동이 어떻게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연대의 기저에는 상호 소통의 체계들에 대한 고민, 상호의 운동이 어떠한 상승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발제문4. 살맛나는 세상.

개념이 아닌 통의자질.

feminism or feminism? 시작영역/공적영역 리사티 구분 체계.

(토론)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운동을 이룰 것인가?

이러한 이해 → 불질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과 위치의 문제: 사적이거나 여성이라는 위치나 제각각 사적영역을 정치화시키는 시작: 공적영역에서의 착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이해
여성적 지향점
여성적 지향점
여성적 지향점
여성적 지향점

여성운동/생존자운동

나 생존을 위한 - 여성들이 여는 움직임. 거 '생존' 관련 * 생존

기존학생운동 '학생/노동자' → '여학생/여성노동자'

여성문제: 생명권/지향권

은유적으로 사적영역/공적영역
/생존/지향권의 구분

무엇이 여성의 시작인가? → '생존' 자체에 대한 이해 → 우리들을 매일매일 다시 쓰고, 여성의 불질적 성격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개입적 생존전략과 지향의 전략. 전략과 위치나 리사티 문제 (사적적 사적사적).

포럼 2. 여성운동의 방법 및 조직체계
8월 22일(토) 19:00 - 22:00 명진관 207호

발제문 1

여성주의.
반성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김신현경 (연세대 총여학생회장)

연세대학교에서 총여학생회가 생긴지 11년이 다 되어간다. 지금은 빛이 바래 버렸지만 당시의 문건들이나 자료집을 볼 때면 그때나 지금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는 여전한 것 같다. 한편으론 열심히 뛰어온 것도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 물론 이런 감상적인 기분을 뒤로 하면 당시의 문제의식과 10년이 거의 경과해오는 지금의 문제의식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11년전 처음 총여학생회가 생길 당시에는 정파를 가리지 않고 운동 내에서도 주체로서의 여학생은 언제나 소외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진 일련의 사람들이 모여 총여학생회를 세웠다고 한다. 무지하게 많이 싸우면서 얻어낸 공간과 재정등 이때 확보한 물적조건은 지금까지 대학내 여성운동 세력이 '총여학생회'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 특별기구'라고 하는 이름도 내용도 모호한 기구로 등록하면서 이후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야기시킨다. 이후 94년까지 총여학생회는 연세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업과 더불어 학생운동의 중심사상에 복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95년 들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당시 선세이션을 일으켰던 '성정치 문화제'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선거에 뛰어들어 경선이 이루어지면서 전혀 새로운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선거에서 쪼트나 학생회를 잡지 않는다고 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성운동에 있어서 자신의 일상을 정치화시켜 낼 수 있는 여러 소모임이나 자치질서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성정치 위원회'라는 독자적인 모임을 꾸린다. 96년 당시 제 9대 총여학생회는 선거에서 비록 이겼으나 중심운동에 대하여 부차적인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에 기대되는 역할로 인한 독자적인 사상적 기반과 활동 매커니즘의 부족으로 성정치위원회에 자신들의 물적인 조건을 내어주게 된다. 이후 1년동안 연세 내에서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여성화 소모임들은 서로 소통하게 되면서 다시금 여성운동의 독자적 세력화를 위한 여러 조직을 고민하던 중 '학생회'질서 안에서 이를 풀어내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여성자치연합'을 결성하게 된다. 이들은 또 학생회 선거때 권력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독점하는 학생회 질서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여성자치연합으로 모여있던 97년 한 해 내내 이들은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공간과 재정을 박탈당할 (실제로 재정의 경우 2학기 예산은 97년말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총여학생회로 이월되었다.) 위협에 처했다. 분명히 공간과 재정은 총여학생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몫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학생회 대리 권력자들은 학생회 질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총학생회 특별기구'이니 그들이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으나 지난한 논쟁 끝에 그저 묵인하는 정도로 통과가 되었다. 이 부분에서 '여성자치 연합'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은 운동에 있어서의 물적조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게 된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으로 왜 이러한 물적 조건들은 속편말로 학생회를 '잡아야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외의 조직들은 '학우 대중들에게 검증받지 않아서'라는 말로 모든 물적조건들을 박탈당하고 밑에서부터 박박 기어올라야 하는 것은 학생사회내 간접민주주의의 질서가 마치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상의 질서는 단지 보완책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 때문은 아닌가? 여기에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얘기를 지리하게 할 생각은 없다. 분명한 것은 선거를 통한 학생회 질서의 성립이 가지는 급진적인 의미는 이제 학생사회내에서 그 유효성을 거의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미 이전 정파들간의 싸움, 학우들의 무관심으로 요약되는 90년대 학생회 선거의 모습은 대학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를 효과적으로 수행해내지도 못하고 여러 정치적 의제들의 문제제기도 보완책 정도 아니면 정치적 수사로서만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가 학생회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든 점을 올 한해 실험해 보았다면 그 가능성도 실험해 볼 수 있으리라는 문제 의식하에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물론 다시 총여학생회로 돌아왔다고 해서 건넌 강을 다시 건너왔다는 말은 아니다. 여성자치연합 당시의 문제의식 즉 '여성운동의 독자적 세력화와 활성화'에 기반하여 현재의 총여학생회는 또 한번의 실험을 감행한 셈인데 말하자면 '학생회'라고 하는 공적이고 전통적인 정치 기구를 '이용하여' 자치질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때만 해도 '총여학생회'가 자치 질서를 위해 서 있지 않을 것이며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 유리한 점을 최대한 살려 단일한 통로를 여러갈래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여성주의 권력'이라고 이름 붙였다. 즉 여성들 특유의 관계맺는 방식에서 지도자가 지배자가 되지 않으며 느슨한 중심과 주변의 연대를 우리는 상상하고 실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제 반년이 다 지난 지금 그러한 실험은 어느 정도까지 온 것인가? 이를 점검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의의다.

총여학생회
과거처럼
으로 삼고
↑
자치단체

형상. 실제적인 것을 파내는 문제: 학생회가 자치단체

학생회: 11명의 싸이클을 지.

조직의 형태로 보았을 때 연세 내에서 여성운동 세력은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가 모두 공존하고 있다. 각 조직의 장점만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으나 물론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으며 지금의 상황은 단점들이 여러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총여학생회가 없었을 당시 여성자치연합 및 몇몇 자치단체들의 활동과 내용은 놀라운 정도로 기민하고 적극적이었던 반면 지금의 경우 학내 모든 여성문제가 일단 총여학생회 책임으로 돌아가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처음 생기는 소모임 같은 경우 세미나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 건지부터 감없어 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들의 대표와 총여학생회가 만나는 자리마다 총여학생회는 너무 많은 제안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모임은 호지부지 되어 버렸다. 이를 각 조직 주체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권력의 대리자로서의 학생회 상에서 별로 벗어나는 언어 및 제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제안들이 있었다. 첫번째가 재정 문제인데 자치단체들이 필요한 돈을 총여학생회가 판단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총여학생회비 일정 부분을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가 공동 관리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필요한 때마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예산자치제'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들의 총무와 총여학생회 총무가 실질 관리를 하면서 1년의 사업이 끝난 뒤 돈이 남을 경우 총여학생회비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로 돈이 이월되는 형태이다. 두번째가 공간 문제인데 여학생 휴게실을 자치단체 중 한 곳이 관리하게 한다든지 총여학생회 공간을 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할 때 예약을 해서 개방하게 하는 제도 등이다. '예산자치제'는 기본적인 골격의 합의를 제외하고는 아직 실험이 되고 있지 않으나 2학기 때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며 공간 문제는 이미 시행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학생회칙에서 여성운동의 부분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러한 물적 기반을 제공받아야 함을 명시한다든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선거자체는 바꿀 수는 있겠다. 학생회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왜 잘 모이지 않는가?'에 대해선 내부 체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2)자매에 만세!? - 일상의 정치화에 성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위에서 '여성들 특유의 관계'에 희망을 걸었다는 얘기를 밝혔다. 그런 만큼 올 한해의 경험은 소중한데 그것은 페미니즘은 논쟁적인 정치적 해석이지 결코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정체성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말에서 정체성의 개념은 여성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개인적 생존전략과 저항의 책략으로 그것은 또한 비판적인 실천이고 지식의 양태가 되는 것이다. 즉 페미니즘은 매일매일이 투쟁의 시간이며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투쟁의 공간이 되는 일상의 정치학이며 그 결과 경험과 담론의 경계를 재조정하면서 제도화를 거부해 나간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내부 체계에서 인자를 재생산하는 문제에 관해서 '자매에 만세!'수준의 의지만이 있었다는게 현재 가능한 진단일 것이다. 특히 우리는 새내기들이 학생회에서 1학년 때부터 실무에 차여 결국엔 자기 얘기도 아닌 얘기를 반복하고 싸이클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운동에 회의를 느끼며 떠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

하게 되는 기존 학생회 인자 재생산 체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학년이 되었을때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는 형태를 가능한 상으로 잡았다. 총여학생회 주위를 얼렁거리던 사람을 잘 붙잡아 줄 수 있었던 체계 자체가 아예 없는 채로 개인의 친밀함에 승부를 걸던지 자치단체만 믿고 있는 꼴이 되곤 했던 것이다.

수다떨기는 수다가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실천이 될 수는 있다. 문제는 그것 자체로 '일상의 정치화'를 생각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과단위까지 소모임이 있으며 고민과 생활을 나누는 기독교 조직이야말로 일상의 정치화에 가장 성공하고 있는 경우일지도 모른다. (기독교자제를 폄하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연세 내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달리고 있을 한 무리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위협감에서 하는 소리다. 총화를 기독교가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재대로' '자매에 만세'를 넘어서(물론 자매에는 소중한 느낌이고, 경험이기도 하다.) '일상을 정치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문제에 있어서 특히 둔감하기 쉬우며 차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대기들에게 무엇보다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그들 나름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다로 시작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발성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그들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도교육의 폐해에서 막 벗어난 이들이다. 이들 속에 얼마나 많은 욕구가 부글거리고 있을 것인가. 그러나 또한 이러한 욕구를 누르기에도 얼마나 익숙한 이들인가 말이다. 솔직히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여성운동세력들이 찾아오는 세대기들에게 '남녀차별'의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다양하게 길러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세미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페미니즘 사상', '여성운동사' 정도의 커리만 반복하기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비판적 시각을 키울 수 있는 커리를 많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총여학생회라면 학기초에 세대기 교양학교등을 열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포섭된 세대기들을 잘 굴릴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하고 그 외 자치단체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때 적극 개입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면 기존의 학회들과 문제의식 및 커리들을 교환,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사이 어느 학회나 세대기를 위한 교양 세미나로 여러 주제를 잡고 있다. 또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들이 기존 학생운동에서 여성운동쪽으로 온 사람들이다. 사람에 따라 회의를 느껴서일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존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들에게 여성운동의 체계는 무체계로 비취질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들이 노하우를 잘 펼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문제의식 및 체계에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장이 필요하다.

특히 이부분에서의 글이 지나치게 주체의 의지쪽으로 무게가 실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연세내에서의 경험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존 학생회에 대한 불만으로 그 모든 체계를 거부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으며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는 비판을 아낄 필요는 없다. 실험을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모든 운동에 있어서 특히 이제 막 커나가려 하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사람들을 쫓기고 남기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인 장과 노하우 그리고 유연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함께 가는 주위의 사람들만이 여성운동의 독자적 세력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위에서 서술한 연세 내에서의 경험과 반성은 비단 한 학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여러 대학 여성운동 세력들이 연대를 하는 방식과 체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량이 이 정도의 여성대회를 치뤄낼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좀더 냉철히 생각해 보면 역사란 언제나 앞으로 달려가는 직선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현재 굴러가고 있는 '성폭력 연대회의'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구 여대생 먹고 살기)' 등의 연대 모임 내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그 조직이 더 잘 짚을 문제이긴 하나 학내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그 조직만의 사업을 방대하게 벌려냄으로써 과부하가 걸리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한다. 이는 현재 연세 내에서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가 처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 대학 운동단위의 생명이 인자재생산이란 점을 보아 이월체제도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이런 연대 단위들과 더불어 잠시 추진되다 해소된 대표자회의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 회의가 무엇을

제안: 정4수집 → data base (열려있는) → 공동된 정제분석의 망.
(cyber 공간을 이용)

할 수 있는지나 체계가 많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당시 이 준비모임이 해체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아서였으며 각 단위들의 사정이 별로 좋지 못했다는 것도 큰 몫을 했다. 대표자회의는 학내 상황보고 수준에서 그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권력을 가지는 중앙조직이 되는 경우이거나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학내 상황보고와 더불어 여성운동세력의 공동 입장을 효율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성폭력이나 여성 노동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모이는 연대 모임들이 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일들이 대표자 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내부의 체계는 준비모임이 돌아갈 수 있으면 함께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수평적이고 역압적이지 않은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많은 실험들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여성운동세력의 공동입장을 가져나가면서 전체 학생 사회내 질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독자적인 여성운동의 세력화라고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실험해볼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글을 맺으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나 개인에게 있어 내가 여성이며 여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은 아주 가슴 벅찬 일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도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구나, 여자친구들하고도 얼마든지 즐거운 많은 일들을 벌여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들. 우리들 모두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그리곤 인생이 달라진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체계의 문제며 재생산의 문제 모두 이런 느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각자 다른 개인들이다. 여성이란 이름으로 모였지만 각자의 느낌과 지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조절되고 풀어야 할 문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조직적인 차원에서든.

이제 조금쯤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리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디까지 왔니?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 손을 내밀면 술래의 얼굴이 드러나는 때. 그러나, 아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발제문 2

아직 끝나지 않은 시도—연대체

이수경 (관악여성모임연대)

관악에서는 94년도를 기점으로 학내 여성운동의 독자적 세력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관악여성모임 연대」(이하 여모)의 탄생(?)이었다.

여모의 탄생과 더불어 여모내부에서는 여성주의적 조직에 대해 많은 고민들이 일어났다. 역압의 지점 자체가 외부로부터 촉발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여성운동은 여성들에게 태어남과 동시에 남성 주류집단들에 의한 소외 및 배제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운동에게 자아 및 공동체 재구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또, 여성이 역사적으로—오늘날의 학생운동 진영에서조차도—'타자'로 자리 매김 되어 왔다는 사실은 운동원의 소외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기존 운동권들의 조직체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없게 했다. 기존의 총여학생회의 모습도 역시 고민되어졌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의 형태는 여성주의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학우들의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총여학생회는 학우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위치이기에 효율성 이데올로기에 초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전체 학생운동판 속에서 존재해야하기에 남성적 위계질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러한 고민들의 결과 얻어진 '여성주의 조직'이 바로 '연대체'였다. 당시 몇몇 단대에는 자생적으로 여성모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기존의 모임들을 조직화하고 새로운 모임을 형성시켜 이 모임들을 전체 학단위로 묶어냄으로써 관악여성모임연대는 만들어졌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98년 여모의 조직체계는 각 모임들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 Table과 성폭력 학칙제정 공동대책위원회, 연대사

업부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여모에 결합하고 있는 모임들은 공대 여성위원회, 마을006, 법대 여성학회, 법대 성정치 운동모임, 사회대 여학생 자치회, 생활대 여성학회 등. 인문대 여우방, 자연대 女聲, 한울타리다. 이 모임들의 대표나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연대 Table에서는 매주 모임을 가져 여러 논의들을 공유, 결정한다. 성폭력 학치재정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사업부는 팀의 형태로 존재한다.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조직체계는 실제로는 많은 맹점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 관악여모는 이러한 조직체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보완 체계를 논의중에 있다. 이른바 「여성주의 조직」으로 불리는 '연대체' 조직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또, 분명히 여모가 느끼는 어려움들이 그 조직체계의 맹점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닌 것이다. 학내 여성운동 전반이 가지는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어려움들의 원인을 연대체라는 조직체계로 인한 것 / 가지와 여성운동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 3가지로 정리해보았다.

① '연대체' 상의 불명확성/부재

90년대 학생운동 관에서의 '연대'라는 단어는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는 정치조직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 여성운동판에서도 연대라는 단어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태도로 작용하고 있다. 총본격의 글들에서는 '우리의 결론은 연대'라고 밝히고, 연대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구성원의 소외, 혹은 타자화도 나타나지 않게 될 것으로 이야기된다. 따라서 '연대체'가 바로 여성주의 조직으로 불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된다. 그러나, '연대체'와 '연합체', '협의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미묘한 차이들이 우리가 바라는 '연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상 조직-연대체'라는 재정의의 사용하면서도 이를 구체화하지도 않고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 자의대로 규정지어 버렸던 것이다. 자의적 규정은 필연적으로 구성원들의 방만함을 불러왔고, 여모라는 연대체의 구심이 되어야 하는 연대테이블은 구성원의 30%정도가 겨우 참가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렸던 것이다. '연대체'상이 기존에 존재했던 것이 아닌 이상 그 모습의 불명확성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겠지만, 불명확성이 방만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은 '연대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② 참가단위의 결합수위의 차이

앞서도 이야기했듯 여모는 9개의 단위의 연대체이다. 이 9개의 단위들은 각자의 활동무대에서 많은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독립된 모임들이다. 모임수가 많은 만큼 그 모임의 성격들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성격들을 먼저 운동성이라는 스펙트럼으로 보면, 그 스펙트럼은 넓게 퍼져있다. 그러기에 함께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결합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운동성 정도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단위의 크기, 재정상태, 활동력에서도 이러한 스펙트럼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들은 여모라는 조직체에 대한 결합수위를 서로 다르게 결정하게 된다. 결합 수위는 여모의 일에 대한 적극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단위의 상황이라는 것은 방만함에 대한 하나의 면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연대체라는 조직체계의 피할 수 없는 맹점이 된다.

③ 대표자의 부재

연대체 속에서는 대표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여모의 대표는 없는 것은 아니나 연대 Table 회의 주재자 역할만을 하게 되므로 그 힘(?)은 거의 없다. 이는 기존 운동조직들의 권위주의적 관료제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결과는 책임에 대한 회피로 나타나게 되었다. 모두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조직은 모두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으로 변화해 버린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구성원 개개인들의 잘못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나태함을 그 내부에서 막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연대체는 조직의 이러한 역할을 놓쳐버린 것이다.

결국 이 세가지는 서로 얹혀 운동원들의 방만함을 가져왔다. 물론, 연대체가 아닌 다른 조직체계에서도 운동원들의 방만함은 나타나지만 연대체라는 조직체계는 이러한 방만함을 수수방관, 혹은 조장하기까지 하여 여성운동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④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능력부족

이것은 연대체의 맹점이라기 보다는 여성운동의 전반에 걸친 내, 외부적 평가다. 재정면이나 활동인자 재생산 면에서 여성운동은 그 독립성을 잃어버렸다. 이는 결국 학생회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났고, '학생회는 학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는 곳'이라는 전제 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생회에 일을 떠맡겨버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다. 분명 여성운동은 기존 학생운동과는 다른 모습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들이 '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여성주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전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독자성만이 존재할 뿐 여모 혼자서 사업을 추진해 본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회와 완전한 결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운동의 진보성은 학내 여성운동에서도 떠안아야 하며, 같은 이유로 다른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의 끈은 놓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성운동이 기존 주류학생운동의 산하 단체가 아닌 독립적 운동으로서 존재하려면 논의의 독자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이나 활동인자의 재생산 면에서의 독립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독자적 소통구조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모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활동인자 재생산의 측면이나 독자적 소통구조 개혁의 측면은 좀더 큰 체계에서 고민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대표자 회의가 필요하다. 여모에서는 이러한 고민과 함께 구성원의 방만함을 견제(?)하기 위해 연대 Table 이외의 집행부 형식의 팀을 구상하고 있다. 또,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한다. 집행부 형식의 팀은 효율성 측면과 대표자에게 어느 정도의 힘(?)이 부여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모가 예초에 탈락시켰던 총학생회의 모습 속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설립'이 아닌 '연대체상의 변화'를 택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여성운동속에서의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 때문이다. '여성주의 조직'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시도는 끝나지 않았고, 수정과 변화를 통해 구체적인 상을 실천으로 찾아낼 것이다.

발제문 3

박희정 (이와여대 여성위원장)

여성운동 조직의 내부체계는 각 단위마다 처한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대와 남녀공학의 지형이 다르고 또 총학생회와 위원회의 상황은 틀릴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대에서 위원회 체계로 있는 단위의 입장에서 이대 여성위원회의 체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각 대학별로 너무나 다른 지형을 가지고 있듯이 이대가 지닌 나름의 특수성을 전제하고 이야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학내 독자적인 여성운동 조직이 생성되고 그 안에서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기존의 운동권내의 가부장적 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평적이고 여성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체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각 단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속에서 내부 운영에 있어서 '여성주의적인 체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주의적 체계라는 것, 그것이 수직적인 남성적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열린 구조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체계'에 대한 명확한 상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대 여위 또한 학생회 체계 밖에서 위원회의 위치를 가지면서 나름의 체계를 구성하고는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1) 이화 안의 '위원회' 체계

이대 여성위원회가 이화안에서 위원회라는 상을 선택하게 된 것은 우선 위원회라는 체계가 가지는 내부의 수평적 구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학생회 질서 안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할 때 가지는 한계 지점 때문이다. 이대 여성위원회는 96년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학생회 체계 안에서 여성문제는 쉽게 부차화되거나 학생회의 다른 사이클에 맞추어 우선권을 내주어야 하며 어떤 정파가 총학생회를 잡느냐에 따라 흔들리는 위원회의 위치와 일년마다 인자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운동의 흐름을 조직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고민하에서 여성위원회는 학생회 질서 바깥의

자치단위로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과 공간 등 모든 것이 학생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안에서 학생회 질서 바깥에서 활동하기 위한 물적 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당시 총학생회는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있는 총학생회 예산의 20%를 자치단위 연석회의라는 틀로서 학내에서 자치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위를 지원할 것을 고민했고 여성위원회는 자치단위 연석회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운동에 대한 합의지점이나 활동태에 대한 공유로 생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학생회에서 벗어나 있는 단위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단위이고 때문에 너무나 다른 활동태와 물거리를 가진 단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성위원회, 시네마테크, 제2대학, 생활서관) 또한 총학생회가 해마다 바뀌는 상황에서 '자치활동지원비'는 관례의 문제로 남을 수 있겠지만 '총학생회 예산의 20%이하'로 불안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위 연석회의 독자적 예산을 획득하는 것이 큰 문제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대에서 3대로 이월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위 연석회의가 아닌 새로운 물거리를 모색하게 되었고 학내의 여성소모임의 건설과 활성화를 통해 여성위원회와 소모임들의 연대체 구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모임을 구성하고자 하는 인자확보의 문제, 그리고 그들을 교육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연대체와 여위의 관계설정의 문제들로 인해 현재까지는 자치단위 연석회의의 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회가 아닌 단위로서 학생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에 대한 대중으로 부터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중이 인정하는 단위로서 자리잡는 것은 운동단위로서의 당위의 문제와 더불어 현재 여성위원회가 학생회 질서 바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2) 내부 조직 체계

이대 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 간의 수평적 관계에 기반해 집부나 국을 구성하지 않고 시기마다 진행되는 사안별로 팀을 구성한다. 물론 활동의 기간과 경험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 진행을 중점적으로 가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지만 그것이 위계구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팀에는 팀의 일정을 조율하는 주체가 서게 되어 팀별로 활동이 진행되며, 모든 결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들과 논의된 후에 이루어진다.

이대 여위가 팀체계로 운영되는 것은 우선 기존의 학생운동 조직과 같이 1년을 주기로 한 사업의 틀이 짜여질 수 없고, 시기마다 발생하는 사건들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유효한 체계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결정된 것을 하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팀내에서 논의된 내용이 전체회의에서 소통되는 과정이 조직내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데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한다. 그러나 발생하는 사안에 맞추어 팀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 인자가 유동적이며, 각 팀이 맡은 사안별로 일이 진행되는 기간과 내용이 풀려지게 된다. 그것이 전체회의를 통하여 소통되고 조율되어야 하지만 전체회의 사이의 일주일은 팀내에서 급박하게 진행되는 일들에 대응하기에는 긴 기간이다. 때문에 한 쪽으로 일이 풀려거나 팀간의 소통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전체회의는 모든 구성원에게 여위의 진행상황을 소통하고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 진행의 효율성에 있어서의 문제지점이 있으며 실무적인 사항들이 논의되는 장이라 회의에 참여하는 신입위원들(특히 새내기)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는 것과 실무를 배워나가는 것은 다른 일이고, 신입위원들은 회의테이블에 참여하면서 많은 부분을 어려워하고 지쳐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일에 대한 '감'을 익혀나가기기도 한다. 그러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실무에 우선되는 것이 관점을 가지는 일이고, 자신을 새롭게 성찰해볼 수 있는 눈을 갖기도 전에 막말로 일에 치여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새내기 위원들에게는 여성학에 대한 조직적인 학습과 개인적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부의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 가시적인 체계를 고민하는 것과 함께 단위 사람들간의 인간적 소통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조직안에서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는, 조직이 개인을 먹여버리는 기존의 남성적 조직체계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여성운동이 일상에서 시작하고 일상의 문제를 풀어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조직이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은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들어온 조직안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나누어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조직이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발전적인 운동성을 기대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서로의 일상의 삶에 접근하여 서로가 가진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서로에 대한 복돈음, 서로가 서로를 좋은 의미로 감재해 나갈 수 있는

기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3) 연대모임과 대표자회의

현재 대학내 여성운동단위의 연대모임으로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고민되고 있는 조직론에서 연대모임과 또 그 모임에 속한 단위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연대'는 생성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활동기간이나 내용성의 축적이라는 면에서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단위들은 중앙조직이 아닌 사안별 연대모임이고 모임에 속한 단위의 상황에 대한 소통이나 정세판단 등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을 소통할 수 있는 모임(대표자회의?)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학내 여성운동단위의 거의 유일한 모임으로 존재해 온 연대회의에서 그 기능을 떠 맡으면서 현재 연대회의의 활동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연대회의와 각 단위와의 소통구조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단위의 활동과 괴리되고 있다. 분명히 중앙조직의 형태가 아님에도 각 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연대회의로 소통되지 못하고 학단위의 상황과 일정이 소통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대회의의 사업을 받아 안기 식이 되어버리고 있는 듯 하다. 현재 사안별 연대모임으로서 '대학연대'가 시작되는 시기고 대학연대의 활동이 커져나갈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크게 부각될 지도 모른다. 연대모임이 각 단위를 키워주지 못하고 서로 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소통구조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사안별 연대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현재 학내의 여성운동단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여성운동조직으로서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각 단위가 활동하면서 가지는 고민들, 한 시기의 정세판단과 전략 모색을 함께 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운동단위로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축적시켜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 각 단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그것은 대표자회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생성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주의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주의적인 체계를 고민해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전혀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새로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여성주의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바로 우리의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때문에 현재 우리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새로운 그리고 발전된 우리의 한걸음을 위하여 우리는 또다른 시작을 열어가야 하는 시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발제문 4

김숙정 (여성연대회의)

0. 들어가며

남성적 운동방식의 무비판적인 답습으로 배제하고 여성적 목표와 여성적 운동방식으로,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을 만들고자 했던 학내 여성운동단위들의 모습들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총여학생회로서 학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총여학생회·단대여학생위원회(학생회 체계인) 감합계 활동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여대의 경우, 총여학생회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 여성위원회나 여성행동위의 형태로 비학생회 체계 자치 기구로서 존재하며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치 기구의 활동은 여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대안적(여성주의적)인 여성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고자 했던 학내 여성운동체의 대화의 흐름이 것이다.

또한 96년 공권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결성되어 현재 여성위원회, 여성행동위, 총여학생회에 이르기까지 학내에서 여성운동에 주력하는 모든 단위들을 포괄하고 있는 '성폭력 그넷'과 여성권 확보를

0. 들어가며

남성적 운동방식의 무비판적인 답습을 배제하고 여성적 목표와 여성적 운동방식으로,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을 만들고자 했던 학내 여성운동단위들의 모습들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총여학생회로서 학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총여학생회·단대여학생위원회(학생회 체계인)과 함께 활동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여대의 경우, 총여학생회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 여성위원회나 여성행동위의 형태로 비학생회 체계 자치 기구로서 존재하며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치 기구의 활동은 여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대안적(여성주의적)인 여성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고자 했던 학내 여성운동체의 대학의 흐름이 것이다.

또한 96년 공권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결성되어 현재 여성위원회, 여성행동위, 총여학생회에 이르기까지 학내에서 여성운동에 주력하는 모든 단위들을 포괄하고 있는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는 연대체로서의 체계와 위상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전여대협의 위주의 여학생운동 이후 여성운동에 관련한 새로운 흐름을 가져가고자 했던 연대체 학내 성폭력에 관한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위로 상당한(?) 공신력을 획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적 차이의 윤리 실현을 위한 살맛나는 세상,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와 같은 연대체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성운동 대표체에 대한 고민은, 97년 하반기를 계기로 몇몇 학단위들이 모여 98년 상반기 초에 그 초별모임을 갖게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무산된 상태이다.

1. 연대회의를 통한 연대체 고찰

- 연대의 상의 부재에서 오는 소통의 문제가 여성연대를 힘들게 한다.

그 동안의 연대회의 사업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연대체라기보다는 성폭력에 관한 하나의 상위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연대회의가 이렇게 되어감에 따라 본질적인 소통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상적으로 소통의 단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름아닌 연대의 상이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단위들의 연대체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기간에 연대회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연대회의의 인자와 각 단위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 다시 연대회의로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회의에 나오게 되는 인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후에 단위에 회의를 보고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연대회의 역시 회의석상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단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 일정을 진행시키기 보다는 연대회의에 나오는 인자들의 일정에 따라 조율을 하였다. 이에 따라 단위의 인자들이 연대회의의 인자화되어 가며, 각 단위들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연대회의에 결합하기는 힘들 정도였다. 이와 같은 소통에서 보여지는 문제들로 소통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연대의 상의 부재에서 도래한 것이다.

- 연대의 상의 부재에서 오는 연대회의 위상의 부재가 여성연대를 힘들게 한다.

여성주의적 성담론들을 사회적으로 형성해나감에 있어 연대체로서의 성에 관한 내용적 고민과 생산은 연대회의의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과 함께 연대회의의 운영원리나 위상이 고민되지 않음으로써 연대회의는 대내외적으로 발전적으로 거듭나지 못하였다. '성이라는 주제로 묶인 여성주의적 연대체이다'라는 바람직하나 막연한 명제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형성해나가는 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대안적인 체계에 대한 고민의 부재가 여성연대를 힘들게 한다.

여성연대회의의 대안적인 체계로의 이행은 곧 무체계를 지향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내부에서의 비권위적이고 비교적 자발적인 환경들도 개개인의 암묵적인 동의 이상의 것이 될 못하여 그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체계로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안별로 역할 분담을 함에 있어서 연대회의 내부 인자들에 의해 그 일에 적합할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하여 결정하는 식이어서 사실 여성운동이라는 커다란 주제에 대한 자발성을 제외하면 이미 운동 과정에 있어서의 자발성이란 연대회의 내부에서 상당히 퇴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틀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것들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을 책임감 있게 자료화하는 식의 팀과 같은 형태로, 연대회의의 경험 속에서 그 기준을 산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2. 대표체에 관한 짧은 생각

97년 하반기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대표자회의의 필요성이 몇몇 인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것은 주로 여성연대회의를 통해 각 단위에 제안되었다. (연대회의가 그나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 일 것이다). 이후 몇 번의 초별 모임에서 그러나 제기 배경에 대한 불명확함과 현재의 여성운동단위의 상황이 대표자회의를 위해 새롭게 인자를 형성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고, 결국 준비모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기는 무산되었다. 연대회의의 내부에서도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가끔 대표자회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오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연락망의 확보라던가, 일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나 외부로부터 대표자회의가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신력이라던가 하는 부분이 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운동의 성과들이 제대로 누적되고 있지 못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대표자회의라는 것이 어떠한 필요성만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생각한다. 비권위적인 구조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운동인 만큼 대표자회의가 합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